

象嵌意匠으로 보던지 大略 麗末鮮初에 該當하는 것으로 보여짐으로 李朝太宗十一年(一四一一)과 高麗忠定王三年(一三五二)中의 하나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高麗忠定王三年頃의 象嵌器에서는 이러한 類例의 粗荒한 솜씨를 發見하기 어려우며 太宗三年 近處에서는 이러한 程度의 象嵌類例를 찾자면 朴鍾浩氏所藏의 象嵌粉靑恭安府銘大接 또는 德壽宮美術館에도 司膳銘 접시等 적지않은 類例를 볼 수 있으므로 結局이 陶范은 太宗十一年에 製作된 것으로 보아서 큰 誤斷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 慶北 英陽郡의 塔像(一)

尹 容 鎮

#### 一、縣二洞 模博石塔

이 塔은 郡廳에서 東으로 約一 km 떨어진 곳에 南北으로 흐르는 河川 건너편에 遺存하고 있다. 古蹟調査資料에는 五層博石塔이라 記載되어 있으나 現在 볼 수 있는 것은 四層만이다. 全體的으로 安東等地에 散在하는 博塔과 同一한 樣式을 取하고 있다.

基壇은 一邊이 六·五 m 高가 〇·八 m 되는 方形石築(上面에 土層)으로 되어 있어서 平地로부터 一段 높게 한 다음 그 위에 第一塔身을 받치기 爲한 一邊이 二·九 m 高一三 cm의 低石段의 괴임이 있다.

塔造成을 爲한 石材는 규격을 一定치 않으나 大體로 平平하게 博模樣으로 다듬은 安山岩質이다. 第一塔身의 規格은 高가 二·五 m 幅이 二·五 m 로서 正方形이며 東쪽 側面에 龕室을 마련하였다. 龕室의 內部는 正方形으로서 一邊이 六二 cm 이다. 龕室門柱石은 花崗石을 長方形으로 다듬어 세웠고 兩쪽 前面에는 流暢한 솜씨로 單調로 우면서 高尚한 氣風이 넘볼게 하는 忍多紋이 陽刻되어 있다. 普通 龕室門柱에는 우락 부락한 仁王像이 彫刻되어 있는 것이 通例인데 이 忍多紋을 볼 때는 어

딘지 溫和한 女性的인 香氣를 내뿜고 있다. 精麗하며 輕快한 이 手法은 新羅藝術의 開花를 뜻하는 듯하다.

第一屋蓋部分의 幅은 約三·五 m 이고 屋蓋받침과 落水面은 階段式으로 되어 있으며 받침은 八段으로 되어 있다. 그 이상의 것은 塔全體에 彫굴이 덮혀서 調査를 못했으며 全體高는 大略 七 m 程度이다. 現在 이 塔西쪽에 河川과 接해서 求成寺라는 절이 있으며 그곳에 新羅遺物인 蓮瓣이 새겨진 石燈臺石 등이 散在하고 塔近方에는 古瓦片이 많이 散在하고 있다.

#### 二、立巖面 山海(奉甘) 模博石塔

英陽邑과 靑松 眞寶間을 連結하는 路上에 있는 立岩面支署에서 다시 東쪽으로 一·五 km 가면 英陽 縣洞塔앞을 흐르는 河川이 이 곳에 와서 半圓을 그리며 내려간다. 이 半圓突出部分에 奉甘이란 마을이 자리잡고 있다.

塔은 이 洞里端 田中에 遺存한다. 外形은 英陽 縣洞과 類似한 一般形이라 할 수 있겠다. 土石으로 나지막한 基壇을 만든 위에 다시 自然의 大石을 안으로 一段 잘고 그 위에다 塔造成에 使用한 石材와 同一한 平扁石을 二段으로 한 괴임을 마련하여 塔身을 받고 있다. 大石으로 된 基壇部는 幅이 四·二 m 괴임은 三·七 m 三·五 m 의 幅을 가지고 있다.

石材의 規格은 一定치 않고 縣洞塔에 使用한 것 보담은 두터우나 역시 水成岩을 平平하게 다듬은 模博이다.

第一塔身의 規格은 高가 二 m 幅이 三·二七 m 로서 東側面에 龕室이 있는 데 그 門柱石과 模



은 紋樣이 없는 素朴性을 나타낸 角形의 花崗石으로 嵌入하여 두었다. 龕室 內部側數는 高九〇cm 橫六五cm로서 內部全面에 石灰로 발라 元來의 狀態를 알 수 없다. 縣洞塔과 比較해 볼 때 塔身과 龕室이 前者는 正方形인데 對해 後者는 高에 比해 幅이 넓다.

第一屋蓋石은 現幅이 約三·二m이고 落水面과 받침 部分은 모두 階段式으로 쌓아 올렸으며 屋蓋에 蒼瓦한 痕跡에 對해서는 알 수 없었다. 現在 全體高는 約八m程度로 全面에 덩굴이 덮혀 上部의 調査는 못하였으나 保存狀態는 比較的 良好하다.

### 三、三池洞 模磚石塔 및 出土佛像

英陽邑에서 盈德行 道路를 열마간 따라가면 縣洞塔앞을 흐르는 河川과 마주친다. 여기서 河川을 따라 約一km 올라가면 下立洞部落에 다다른다. 여기서 다시 山모퉁이로 돌아 五〇〇m가량 가면 三池洞部落에 이르고 塔은 이部落 뒷산 傾斜가 급한 山中腹에 突出한 自然岩石위에 세워졌으며 現在 二層만이 遺存한다. 屋蓋위에는 石造露盤과 相輪이 남아 있다. 自然岩石의 露出高는 二·九m 二위에 塔身을 받치기 爲해 平平한 板石을 깔았으며 第一塔身의 規格은 高가 一一八cm 幅이 一三六cm로서 第一屋蓋部分의 最大幅은 二m이다. 落水面과 받침部分은 亦是 前記二基의 塔과 같이 階段式이다. 第一塔身 南쪽面에 龕室이 마련되어 있다. 現在의 全體高가 約四m程度이며 元來는 三層이었으리라 생각되며 重修時에 石材不足으로 二層으로 縮少된 것으로 생각된다. 現在의 것도 昨年에 庵子建立과 더불어 若干 修理하였다 한다. 昨年 修理途中 龕室의 바닥을 整理하다가 埋沒되어 있었던 小佛像 六軀를 發見하였다 하며 그中 二軀는 다시 龕室바닥에 넣어서 石灰로 封해 버렸고 他四軀는 庵子法堂에 모셔 두고 있다. 搬出된 佛像은 모두 二段으로 된 圓形臺座위에 立佛로 鑄造한 것이며 全體高는 各各 四·七cm, 四·五cm, 三·六cm, 三·三cm이다. 諸佛像의 表面은 모두 美麗치 못하나 造形手法上의 재미나는 것도 있다. 四軀中 二軀는 光背가 있는데 하나는 透彫로 된 火炎紋光背이고 또 하나는 船形金銅板에다 綠邊에 放射線狀의 線을 押入하여 葉模樣을 나타내고 있었다.

佛像은 모두 厚肉의 肉髻가 있고 個中에는 法衣紋이 圓形나타낸 것도 있으며 手印等 全體的 外觀으로 볼 때 古形을 엿보이게 하는 것도 있는 無計劃的으로 個人的의 손에 依해 發掘되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埋藏狀態는 알 길이 없다.

以上 英陽郡內에서 三基의 模磚塔을 比較해 보건대

- ① 모두 같은 河川流域에 가까이 있다는 것.
- ② 奉甘과 三池의 第一塔身은 高보다 幅이 넓고 縣洞塔은 正方形이라 는 두種類가 있다.
- ③ 龕室은 完全히 調査를 못하였으나 모두 第一塔身의 한 側面에만 있다.
- ④ 材料는 모두 石質로서 模樣으로 다듬어 使用했다는 것.

이와 같은 樣式의 模磚石塔이 五km以內의 圈內에 密集해 있는 것으로 볼 때 安東地方에 密集해 있는 塔塔과 比較하여 交通上 가까운 地域에 있다는 것을 一考할 必要가 있다고 본다. 即 政治·文化的인 面에서 볼 때 交通路와 相通하는 것이 아닐까 보고자 하는 것이다. 또 이곳의 模磚石塔은 樣式論上으로 볼 때 塔塔造成의 次代에 들어야 할 것이며 安東塔塔의 技法을 繼承한 것으로 볼 수 있는 點에서 年代는 모두 新羅統一로 推定된다.

## 公州 鷄龍山磨崖佛像

金 永 培

鷄龍山 新元寺에서 新都內로가는 山길을 따라 約四km쯤 南進하면 上峯에서 南쪽으로 뻗어내린 山脈이 急傾斜를 이루고 이一帶에는 巨岩絶壁들이 층층이 솟아 있다. 山中턱을 싸고도는 草路를 따라가면 眼前에 용추고개라고 부르는 險峻한 고개가 나서는 데 이 길은 新元寺에서 新都內로가는 아주 險한 길이어서 좀처럼 人跡이 드문 곳이다. 이 용추고개를 半